

희곡...연극...소설... '아버지'의 변신

한승원 소설가 1998년 희곡 발표
박윤모 모노드라마로 209회 공연
장편소설 '물에 잠긴 아버지' 펴내
30일 문화전당서 출판기념회·공연
22~24일 궁동예술극장 무대도

등단 47년을 맞은 장흥 출신 소설가 한승원은 지금까지 희곡을 딱 한 작품 썼다. 지난 1998년 발표한 '아버지'다. 모노 드라마 작품을 꼭 한번 써보고 싶었던 한 씨는 굴곡진 한국 현대사를 배경으로 11남매를 키우며 산전수전을 겪은 우리 시대의 아버지 김오현을 주인공으로 희곡을 썼다.



작품을 완성하고 난 후 산울림 소극장 임영웅 대표에게 연극 배우 전무송씨를 소개받았다. 전 씨가 연기는 아주 잘하지만 작품에 쓰인 '맛깔스런' 전라도 사투리를 살리는 데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그때 소설가 채희운씨의 소개로 연극배우 박윤모(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씨를 만났다.

당시 연극 인생 30년을 맞았던 박씨는 1998년 모노드라마 공연을 시작했다. 처음 공연 제목은 극중 대사에서 따온 '여보, 국기 달아'였다. 이후 '아버지'를 위하여'로 이름을 바꾸고 작품에 올인했다. 광주 드림아트홀, 서울 세실극장, 경남 거창, 중국에서 모두 87회 공연을 갖는 대장정이었다.

이후 긴 휴지기를 가진 박씨는 10년만인 지난 2008년 제목을 '아버지'로 바꾸고 88번째 공연을 진행했다. 그 해는 한 작가의 고회와 등단 40년을 맞는 해이기도 했다.

모노드라마 '아버지'는 지금까지 209회나 관객들을 만나며 '박윤모 연극 인생'의 대표작이 됐고 올해 프랑스 국립 파리 기메박물관과 벨기에 한국 문화원에서 공연을 가졌다.

'아버지'는 또 지난 2012년 극단 '까치놀이'에 의해 모노 드라마가 아닌, 연극 작품으로 인천과 장흥에서 공연됐고, 울산에서 활동하는 연극 배우 이유테 씨도 모노드라마 '아버지'를 무대에 올리고 있다.

희곡 작품에서, 연극 작품으로 변신한 '아버지'가 이번에는 장편 소설로 다시 찾아온다. 한 작가가 최



한승원 작가



박윤모 모노드라마 '아버지'

근 발표한 장편 소설 '물에 잠긴 아버지'(문학동네)는 '아버지'의 내용을 소설로 옮긴 작품이다. 연극은 회갑잔치에서 김오현이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데 반해 소설은 조금 다른 구도를 취한다.

"주인공 김오현과 11남매의 삶 등 기존 스토리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시인이 된 일곱번째 아들 김철남이 아버지를 모시고 지금은 맏이 돼 잠겨버린 장흥 유치면을 찾아 옛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작품이 200여회 넘게 공연된 건, 만큼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이번에 내놓는 소설에 대한 평가도 독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한승원)

소설의 배경은 6·25 전쟁 직후 인민군이 장악해 '모스크바'로 불린 장흥군 유치면이다. 좌우 대립으로 네명의 형과 아버지를 잃은 주인공 김오현의 아버지는 가문을 일으키는 걸 지상명제로 삼고 오현을 고등학교 때 결혼시킨다. "힘이 닿는데 까지 자식을 낳아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을 들은 오현은 영특했

던 일남이를 비롯해 11남매를 낳고 기르면 산전수전을 겪는다. 오현의 삶과 11남매가 겪어온 삶이 그대로 대한민국 현실의 축소판이다.

한 작가는 오는 30일 오후 5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 2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씨의 '아버지' 공연도 열린다.

"한 선생님이 처음에 작품을 주셨을 때는 이렇게 긴 생명력을 갖고 이어질 줄은 모르셨던 듯합니다. 제가 열정을 받했던 연극이 다시 소설로 만들어지니 참 좋습니다. 이번에 장편 소설로 다시 나오니 연극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겁니다. 이번 출판 기념회에서 '연극'으로 축하드릴 수 있다는 게 영광입니다."(박윤모)

박 씨는 축하 공연과 별개로 모노 드라마 '아버지' 210회 무대를 이어간다. 22~23일(오후 7시30분), 24일 오후 4시 궁동예술극장. 이번 무대에서는 인터넷 답글 이벤트를 통해 관객 90명을 특별 초청한다. 공연 문의 062-511-275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11시에 만나는 클래식 음악회



광주시향, 22일 광주문예회관서 '브런치 콘서트'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지난 3월 열었던 브런치 콘서트는 오전 11시 공연을 시작했다. 시향의 정기 공연이 대부분 평일 저녁에 열리는 탓에 찾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준비한 행사였다.

11시 콘서트는 이현재 상임지휘자의 간단한 해설과 함께 요한스트라우스 2세의 '봄이 오는 소리 왈츠 작품 410' 등 '봄'을 주제로 한 레퍼토리로 꾸며졌다.

광주시향이 또 한번의 11시 음악회를 마련했다. 22일 오전 11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이현재 상임지휘자가 지휘봉을 잡는 이번 공연에서는 드보르작의 '교향곡 7번' 3악장, 포피의 '헝가리안 랩소디', 브람스의 '교향곡 3번' 3악장, 리스트의 '헝가리안 랩소디' 2번을 들려준다.

첼리스트 박경옥씨가 가을과 잘 어울리는 우수 넘치는 곡 오펜바흐의 '자클린 눈물'을 협연한다. 현재 한양대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씨는 서울대 음대,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 미국 예일대 대학원에서 수학했으며 오사카 국제 실내악 콩쿠르 등에서 입상했다.



첼리스트 박경옥

티켓 가격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함평 출신 박판석 시인 '도토리 열매...' 펴내

함평 출신 박판석 시인(67)이 두 번째 시집 '도토리 열매 속에는 큰 산 하나 들어간다'(시외사람)를 펴냈다. '새벽산길' 이후 10년만에 펴내는 두 번째 시집에는 산, 가족, 가톨릭 신앙, 교육 등을 소재로 한 시들이 수록됐다.



첫시집에 이어 이번 시집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은 '산시(山詩)'라 이름 붙일 수 있는 산을 소재로 한 시편들이다. 시인은 산을 오르며 깨달은 것을 "사람들은 오르고 산은 내려온다"는 역설적인 진리로 그려낸다.

"사람들은 산이 하늘로 치솟는다고 말하지만/ 산을 따라 내려가 보면/ 제 몸을 할어 풀자기로 모이는 숲과 물길/ 낮은 곳을 향해/ 흙으로 돌아가는 산의 숨소리가 들리는데/ 산보다 높이 나는 새들도/ 능선 아래 집을 짓고 새끼를 기른다"(산이 가는 곳'중에서)

이처럼 시인은 산의 보편성을 통해 산의 본질인 생명성과 희생성을 모색한다. 그의 시가 지금까지 쓰여진 수많은 시인들의 산시(山詩)와 결이 다른 이유다. 시인은 산

을 경외시하기보다 산의 본질을 발견하는데 초점을 둔다.

해설을 쓴 김준태 시인은 "시의 오브제인 '산'은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 다치지 않고, 다치게 하지 않고 '나무, 산새, 산짐승, 풀잎/ 모두 펼칠 살아 있는 그런 산'이라면서도 "상호보완적 산이여야 하는 운명을 갖는다"고 의미를 평한다.

한편 박판석 시인은 '문학예술' '시외사람'을 통해 등단해 2권의 시집을 펴냈다. 살레시오고에서 37년간 교직에 몸담았었고 현재 원탁시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10-3611-3090.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세계적 지식 콘퍼런스 '테드 북스' 시리즈 번역 출간



세계적 지식 콘퍼런스인 테드(TED) 강연을 국내에서 책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문학동네는 테드 강연 가운데 일부를 엄선해 책으로 만든 '테드 북스' 시리즈의 번역 출간을 시작했다. 테드 북스는 '작은 책, 위대한 사상

(Small books, big ideas)'을 지향한다. 1차분 첫 책은 책 이브라힘의 '테러리스트의 아들'(노승영 옮김)이다. 이브라힘의 아버지 엘 사이이드 노사이르는 저명한 유대인 지도자를 살해하고, 1993년 뉴욕 세계무역센터 폭탄 테러를 모의한 인물이다. 아브라힘은 아버지의 테러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깨닫고 평화의 메신저로 변화했다.

두 번째 책은 건축가 마크 쿠시너의 '미래의 건축 100'(김명남 옮김)이다. 쿠시너는 책에서 세계 각지의 건축 사례 100여 곳을 소개한다. 문학동네는 현재 10종이 출간된 테드 북스 시리즈를 차례로 번역 출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전문방수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시공면을 깨끗히 물청소하시고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방수! 직접 칠해 주세요

● 시외 -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